

큰스님 수행한담

채울수 없어요”



1950년 보현사 주지시절 대웅전 앞에 선 등운스님.

눈앞에 물질만 탐하니 고통이 점점 커져요 욕망 버린자리에 행복이 찾아오는 법

강원의 강주 강사스님이 자리를 하시오. 공양시에는 가사장삼을 수하는 것이 기본이었지요. 그리고 나면 대중방 부전이 좋을치고 신장앞에 발이 올라가고 채공이 등장하지요. 주지스님과 강주스님에게는 특이하게 찬장을 갖다줬어요. 죽비소리와 함께 순서대로 밥과 반찬을 덜고 나면 뒷쪽에 앉은 스님들에게는 밥과 반찬이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면 다시 한술갈씩 나눠서 덜어먹었지요. 또 부복이나 일을 많이하는 소임자에게는 다른사람보다 우선적으로 공양을 배분했지요. 학인스님은 특별한 지사가 없는 이상 거의 굶어앉아서 공양을 했어

면 한날 옹달미에 지나지 않게 되는 이치지요. 모르면 크고 끝없이 보이지만 알고나면 우주라는 것도 한낱 내마음속에 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내마음에서 일어나고 내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물질문명에 빠져서 눈에 보이는 것만 탐합니다. 그러다보니 마음도 빛이 바랄 수 밖에요. 마음참고에 물질을 아무리 넣어도 채울 수가 없어요. 우주처럼 넓은 마음을 어떻게 물질로 채우겠어요. 아무리해도 채워지지 않으면 고통이 따릅니다. 이 고통을 치유할 약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불교의 진리로 채우기 시작하면 마음이 맑아져요. 그리고 우주를 마음속에 집어넣어버릴 수 있어요. 이점을 알아야 해요. 뭐가 중요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가를 빨리 알아야 합니다. 욕망을 버리면 행복이 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불교 백날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근본적으로 지식 불교 기복불교에서 벗어나 참된 실체인 마음공부를 해야 합니다. 마음공부를 하지 않고서는 불교의 진리를 체득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관령 준령 대공산성 밑에 한 토굴에서 사는 노인네가 이런말 한다고 무슨 매아리가 있었습니까? 마는 종단을 이끌어가는 스님네들은 그 곳에 있을때 잘 생각해야 합니다.

불자들은 항상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종단이 어떻게 스님이 어떻게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신의 불성을 찾아 일깨우는 것이 중요해요. 다른것은 모두 방편인데 왜 방편에 의지하여 맡겨버리고 그런니까.

부처님께서 이세상에 나와 우주의 근본진리를 깨달아 부처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중생에게 가르쳐 준 것이 불법이지요. 우주의 법칙인 진리는 성인이 나오거나 말거나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의 법칙을 일깨워 바른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불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깨달아서 인지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런마음을 깨닫는 지름길은 기도하며 공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은 푸른바다를 우주로 감싸안은 큰 마음이에요. 간절한 기도는 간절한 마음을 풀어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둘러봐도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피땀흘려 노력하고 정진하면 그만큼 반드시 성과가 찾아옵니다. 열심히 해야 합니다. 아무런 준비없이 찾아오는 행운은 일시적으로 기쁨을 줄 수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그 사람에게 업으로 다가온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해요. 참회정진하는 마음이야말로 불심을 키우는 지름길임을 알고 살아야 할 바입니다.

김원우 기자(wwkim@buddhopia.com)



양원식

(부산교사불자회장)

교사가 천직인데다 불자였던 나는 조례시간이면 학생들에게 합장한 채로 눈을 감고 2~3분 정도 명상을 하게 했다. 그리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선생님께 감사한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을 들려주었다. 또한 사랑하는 일이 그리 쉽지 않음을 일러주며 어제의 일을 반성하고 오늘의 일을 준비하는 목표가 있는 학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냈다. 학생들에게 부처님이 가르쳐 준 생활 지혜를 조금씩 심어주었던 것이다.

30년 세월이 흐른 요즘, 거리에서 졸업생들을 만나면 아침 명상 시간이 인생의 지표가 되었다고 말하곤 한다. 그리고 어김없이 요즘 건강이 어떠냐고 묻는다. 그런데는 이유가 있다.

30여 년 전, 목숨에 대한 경이로울

것이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는 것이었다. 서재 한켠에 불단을 만들어 놓고 아침마다 향불을 붙이고 관세음보살 염송을 시작했다. 이렇게 관세음보살을 찾던 것이 30년 세월을 이어온 나의 수행법이다.

절에 가 부처님전에 기도를 드리고, 법회장에 나가 법문을 듣고, 자원봉사를 하는 것 등 어느하나 부처님 일 아닌 것은 없다. 하지만 독특한 신심이 뒷받침 되지 않고는 진실로 실천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진실한 불자는 부처님 향내가 온몸을 감싸고 돌아야 한다고 한다. 말 한마디가 주위사람을 한기게하고, 가는곳마다 연화장세계가 열려야 한다. 나는 이 사실을 병마와 씨름하며 알게 되었다.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 라는 말

관음 정근 30년째...병마에도 감사 "부처님 향기 온몸에 감돌아야 불자"

을 체험했다. 교단에 선지 3~4년쯤 되던 해의 일로 당시 수업이 일주일에 41시간 정도였다. 국어 독본시간, 국어 문법시간, 국문학사 시간 등 야간 5학급의 국어시간을 전담했고 2학년 담임까지 맡다보니 병마가 찾아온 것이다.



이 있다. 이는 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병으로 인해 더 많은 진리를 깨달을 수도 있다는 것임을 나는 알았다. 내가 만약 관세음보살을 그토록 간절하게 찾지 않았다면 아무리 좋은 약과 대조가 있더라도 병마와의 싸움에서 완패했을 지도 모를 일이다.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을 종교에 의지한 내 생활이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자부한다. 나는 요즘 주위사람들에게 가슴이 답답할 때 '관세음보살'을 외쳐 보면 마음의 평정과 여유를 찾게 될 것이라고 권유한다. 그들은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는 순간 무언의 가르침이 가득함을 알게 될 것이다.

얼굴이 누렇게 변하고 황달기가 나타나고, 검게 타는 과정에 들어간 사실도 인식하지 못한 채로 건강은 이미 악화되어 있었다. 발견했을 때는 이미 오른쪽 갈비뼈 밑에 손을 댈 수도 없을 정도의 통증이 느껴졌다. 이불을 등에 받치고 먼 산을 힘 없는 눈으로 하염없이 바라보게 하는 간경화였다.

무슨 업인이 있었기에 이렇게 무서운 시련을 주나 싶어 절망과 좌절의 서글픈 나날을 보내기 일쑤였다. 병이 들고 보니 성질을 부리게 되었고, 모든 것이 귀찮았다. 이같은 나날이 계속되면서 그동안의 모든 경험들이 머릿속을 휘감아 들었다. 그중에 언젠가 법회날 들은 웃음의 중요성에 대한 법문이 생각났다. 그 법문의 요지는 일소일소(一笑一少), 일로일노(一怒一老)이다. 그 때부터 나는 이것을 나의 건강비법으로 정하고 대안으로 시작한

이제는 부처님과의 인연이 더욱 깊어지게 한 그 때의 병마저 감사히 여기며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웃음을 잃지 않는 불제자로 살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남을 위해 사는 삶을 살려고 한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교사불자연합회 일이다. 나는 병마에 쫓기며 관세음보살을 찾을 때와 같은 간절한 신심으로 교사불자회 일을 하고 있다.

알면서 행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지식 참회 정진하는 삶이 불심키우는 길

눈을 멀게 한 것도 무섭지만 법의 눈을 멀게 한 것은 더욱 큰 일이지요. 그러나 불제자들의 공부는 얼마나 치열해야 하는 지 일깨워 주지요.

상원사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은사스님이 찾아왔어요. 강원 도반중에 나이가 가장 많은 것이 눈에 띄었는지 일본 유학을 가라고 해요. 그래서 일본 경도 임제대학에서 공부하게 됐습니다. 당시는 일본도 어려웠을 때라 식사가 말이 아니었지요. 학생들은 기숙사에서 단체생활을 했는데 항상 말 건 죽 한그릇이 전부였어요. 그래도 공부에 대한 열정은 대단했지요.

귀국하여 제천 한송사에 주지로 있다가 월정사로 들어와 서기를 봤지요. 특히 월정사는 발우공양이 엄했어요. 대중공양을 하는데 주지가 앉으면 왼쪽으로는 소임을 맡은 스님네가 앉고 오른쪽으로는

요.

지금도 공양시에는 발우공양을 하는데 그때 버릇이 돼서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밥은 거의 못먹고 시래기국하고 송농으로 배를 채웠지요. 요즘 승려들의 생활상을 보면 먹고 살기는 예전보다 무척 좋았는데 공부하는 데 안하는 것 같아 승려기본교육이 중요해요. 기초를 튼튼히 하는 승려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 라이만 불교발전이 있어요. 그리고 화합하는 승가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승가에 가장 중요한 것이 화합이라 했어요. 일불제자인데 시시비비를 가리면 뭐하고 너나를 가리면 무엇입니까. 종단간 승려간 힘을 합쳐 더불어 발전을 모색해야 합니다.

승가는 사부대중의 화합단체입니다. 그런만큼 참다운 불자의 길을 걷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도록 노력해야 해요.

바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마을청년들이 갖다준 나무로 손수지는 법당에 부처님을 모시고 지금껏 예전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불교는 스님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켰어요. 현재 불교는 참회하지 않는 승가가 문제지요. 참회하지 않고는 바로 설 수 없어요.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보살은 내가 지나간 세상, 끝없는 세월에 담고 성내고 어리석었던 탓으로 몸과 입과 생각으로 지은 악업이 한량없을 것이다. 자신의 업이 한량없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씀했어요. 잘못을 했으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참회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는 이제 이대로 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나.이 80이 넘었으니 갈 때도 됐지요.

불법의 진리는 끝없이 어려운 것 같아도 대략적인 줄기를 잡아 공부하다 보면 아주 쉽게 다가옵니다. 큰 대양도 알고보

1998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팔린 책 (교보문고 집계 종합 1위)

맑고 향기로운 법보시

산에는 꽃이 피네

법정 스님 · 류시화 엮음

강원도 산골, 화전민 오두막에서 홀로 생활하는 법정 스님의 삶의 풍경과 지혜의 말씀 그 목소리와 함께 전해지는 감동의 메시지

오디오 북

법정 스님이 직접 읽은 <산에는 꽃이 피네> 카세트 테이프

이 책은 <산에는 꽃이 피네>의 내용을 법정 스님이 직접 읽어 녹음한 카세트 테이프로 만든 오디오 북입니다. 출퇴근 길 차 안에서, 또는 조용한 거실에서 스님의 승결과 영혼이 담긴 목소리로 직접 듣는 메시지는 책에서와는 또다른 감동을 줄 것입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이나 어르신에게도 뜻깊은 마음의 선물일 것입니다.

* 70분 테이프 2개/값 8,000원/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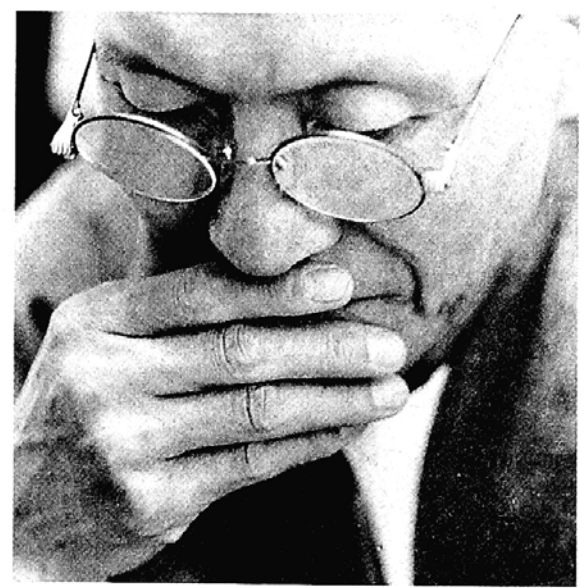
작은 책

주머니 속의 향기, <산에는 꽃이 피네> 작은 책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읽을 수 있도록 <산에는 꽃이 피네>를 아주 작은 크기로 만들었습니다. 손 안에 꼭 들어가는 작은 크기지만 큰 책의 내용과 감동은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담았습니다. 또한 저렴한 가격으로 누구나 부담없이 읽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이웃에게 선물한다면 진정한 마음의 선물일 것입니다.

* 손 안에 꼭 들어가는 작은 크기/248쪽/값 3,000원

다량으로 구입하시면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다량 주문은 출판사에서 직접 받습니다.)



아름답고 달콤한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실행이 따르지 않는 그런 글에 독자는 실망과 공허함을 느낀다. 언행이 일치하는 스님의 응성을 대하면 나는 갈증나는 산행길에서 샘물을 만났을 때와 같은 기쁨이 솟아오른다.

- 이계진(방송인)